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이희영[†] · 천태복

([†]부경대학교 · 개림중학교)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f Adolescents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

Hee-Yeong LEE[†] · Tae-Bok CHEON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Gaerim Middle School

(Received May 4, 2005 / Accepted May 31, 200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use are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 Six hundred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Scale on Friendship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Friendship and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wo Way ANOVA,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trategies that students use in conflict situations were partial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And parenting behaviors influenced strategies that students use in conflict situ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heor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made.

Key words: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Parenting behavior, Grade, Gender

I. 문제 제기

개인은 성장함에 따라 일차 집단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이 비슷한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친구 관계는 연령에 상관없이 중요하나 청소년기에는 특히 그러하다(정옥분, 1998). 즉, 교우관계는 정상적인 청소년 발달에 필수적이다.

청소년 발달 특히 사회성 발달에 있어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Hightower(1990)는 청년기의 좋은 교우관계가 중년기 때의 정신건강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Ryan과 Patrick(1996)은 좋은 교우관계가 사회적 적응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Shaffer(1994)에 의하면, 친구 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장차 원만한 인간관계의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851, hylee@pknu.ac.kr

따라서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은 갈등이다. 개인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Asher, Parker & Walker, 1996). 또한 갈등해결은 친구관계를 유지·존속하는 데에도 중요하다(Collins & Laursen, 1994). 결국, 친구 관계의 성공 여부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갈등해결전략은 협력, 절충, 양보, 지배, 회피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Rahim, 1983).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형은 양측의 의견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고 둘째, 절충형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며 셋째, 양보형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고 넷째, 지배형은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 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다섯째, 회피형은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Rahim & magner, 1995).

이러한 갈등해결전략은 개인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또래 갈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촉진시키고(Dunn & Slomkowski, 1992), 대화기술을 향상시키며(Eisenberg & Garvey, 1981),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Katz, Kramer & Gottman, 1992). 그러면 각 개인의 갈등해결전략은 어떻게 형성되는

가? 이 질문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온 연구 주제이다. 공감능력(김지현, 2002), 조망수용능력(정창영, 1997), 탈중심화 능력(Selman, Schultz, Nakkula, Barr, Watts & Richmond, 1992), 자아탄력성(정미현, 2002), 친구관계의 질(배선영, 1999)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변인이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된다(허묘연, 2000).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부모 자신의 성격, 정서상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구성, 가정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양문현, 1983).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격과 정서상태,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행동수행능력을 포함한 자녀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원식, 1975).

그 동안 몇몇 연구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검토했다. 예를 들어, 정미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구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지현(2002)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선영(2001)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아동은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양육과 관련된 이상의 연구는 모두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 주제는 갈등해결전략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별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한제인, 1994; Fonzi, Schneider, Tani & Tomada, 1997)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김송이, 2001; 배선영, 2000; 정선영, 2001; Chung & Asher, 1996; Rose & Asher, 1999)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변인으로 연령이 있다. 특정 시점에서의 발달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달 현상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갈등해결전략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이 이들의 연령이 변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갈등해결전략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갈등해결전략 관련 연구는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사용하는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전량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20부를 제외한 58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303명이었고, 여학생이 277명이었으며, 1학년이 187명, 2학년이 196명, 3학년이 197명이었다.

2. 측정 도구

가. 부모 양육행동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의 8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학대’는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 남기는 결과를,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을,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을,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 문항이 측정하는 하위 양육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애정(.85), 합리적 설명(.80), 학대(.81), 과잉간섭(.78), 과잉기대(.83), 감독(.76), 방치(.69), 비일관성(.60)이었다.

나. 갈등해결전략

중학생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2000)이 개발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4가지 전략(회피, 지배, 양보, 협력 및 절충)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 결과 회피전략 중 12번 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와 제외하고 3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측정하는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과 비슷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 채점 문항은 없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한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회피(.58), 지배(.71), 양보(.70), 협력과 절충(.55)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각 1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적절성과 타당성 및 검사의 소요시간, 검사의 이해 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질문지,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순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보완은 하지 않았다. 본 조사는 2004년 12월 22일에서 12월 30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저자가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급 교과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조사는 두 번째 연구자의 주도하에 수업시간에 실시되었고, 조사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version)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지각한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및 학년에 따라 Scheffe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사후 검증 시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미응답 문항은 사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점수를 표준화하고 높은 점수를 유형화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동점인 경우는 사례수에서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산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와 모의 양육행동 상호상관을 분석할 결과 상관이 높게 나와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부와 모의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분석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2)×학년(3)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 점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회피, 지배, 양보 전략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협력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의 변량분석 결과에 따른 사후검증을 위하여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Scheffe' 방식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회피 전략, 지배 전략, 양보전략 점수에서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 전략의 경우 1, 2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이거나, 지배적인 전략 혹은 동시에 양보 전략을 폭넓게 사용함을 의미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협력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표 3>은 연구대상 중학생 개인에 따라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 협력 전략 점수를 표준화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바탕으로 갈등해결전략을 유형화하고 이를 남녀 학생별로 구분하여 학년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 전략 유형별 빈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변량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남학생; 19.7%, 여학생; 27.4%), 남녀 학생 모두 학년이 증가할수록 협력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이원변량분석

갈등해결전략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회피	성별	114.92	1	114.92	19.02	.000
	학년	28.56	2	14.28	2.36	.095
	성별×학년	25.72	2	12.86	2.13	.120
	오차	3468.26	574	6.04		
지배	성별	204.55	1	204.55	20.61	.000
	학년	19.23	2	9.61	.97	.380
	성별×학년	29.21	2	14.60	1.47	.231
	오차	5657.68	570	9.93		
양보	성별	200.29	1	200.29	20.19	.000
	학년	18.50	2	9.25	.93	.394
	성별×학년	29.91	2	14.95	1.51	.222
	오차	5655.10	570	9.92		
협력	성별	7.74	1	7.74	1.10	.296
	학년	99.52	2	49.76	7.04	.001
	성별×학년	16.65	2	8.32	1.78	.309
	오차	4005.91	567	7.07		

주) 협력은 협력과 절충을 의미. 이하에서는 편의상 협력으로 표기함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

갈등해결전략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scheffe' (α=.05)
회피	성별	남학생	303	8.24	2.45	남 > 여
		여학생	277	7.36	2.49	
	학년	1학년	187	8.09	2.44	차이 없음
		2학년	196	7.77	2.39	
		3학년	197	7.60	2.66	
	지배	성별	남학생	303	12.43	3.03
여학생			273	11.27	3.29	
학년		1학년	183	12.01	3.09	차이 없음
		2학년	196	11.69	3.36	
		3학년	197	11.94	3.15	
양보		성별	남학생	301	10.67	3.21
	여학생		275	9.51	3.09	
	학년	1학년	186	10.32	3.18	차이 없음
		2학년	196	9.96	3.26	
		3학년	194	10.08	3.17	
	협력	성별	남학생	301	13.68	2.56
여학생			272	13.42	2.81	
학년		1학년	183	13.04	2.62	1=2 < 3
		2학년	194	13.55	2.78	
		3학년	196	14.06	2.57	

<표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교차분석

성	학년	갈등해결전략 유형				전체	X ²	p
		회피	지배	양보	협력			
남학생	1학년	23(26.7)	26(30.2)	23(26.7)	14(16.3)	86(100.0)	1.94	.925
	2학년	30(27.8)	32(29.6)	25(23.1)	21(19.4)	108(100.0)		
	3학년	23(23.0)	28(28.0)	26(26.0)	23(23.0)	100(100.0)		
	전체	76(25.9)	86(29.3)	74(25.2)	58(19.7)	294(100.0)		
여학생	1학년	31(33.3)	22(23.7)	19(20.4)	21(22.6)	93(100.0)	13.46	.036
	2학년	16(19.3)	22(26.5)	26(31.3)	19(22.9)	83(100.0)		
	3학년	18(20.0)	24(26.7)	15(16.7)	33(36.7)	90(100.0)		
	전체	65(24.4)	68(25.6)	60(22.6)	73(27.4)	266(100.0)		

적 해결전략 유형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남학생의 경우, 1학년(16.3%), 2학년(19.4%), 3학년(23.06%)의 비율이며, 여학생의 경우 1학년(22.6%), 2학년(22.9%), 3학년(36.7%)의 비율로 협력적 해결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회피 전략 사용 빈도가 1학년(33.3%)에 비하여 2학년(19.3%)과 3학년(20.0%) 때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특

징적이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래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8개 하위영역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

고 갈등해결전략 각 하위영역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갈등해결전략 사용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로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 또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남학생

<표 4>는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점수와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영역별 점수간의 적률상관

<표 4>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점수와 부모 양육행동 간의 적률상관(남학생)

전략유형	부모 양육행동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회피	.184**	.022	.029	.155**	.091	.125*	.50	.012
지배	.122**	.131*	.024	.202**	-.038	-.027	.034	.154**
양보	.021	.002	.123*	.123*	.186**	.182**	.166**	-.051
협력	.149*	.118*	.018	.078	.066	-.003	.016	.113

* $p < .05$, ** $p < .01$

<표 5>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분석 (남학생)

종속변인	투입변인	R	R ²	R ² 추가	β	t	p
회피	감독	.199	.040	.040	.199	3.30	.001
	학대	.252	.063	.024	.155	2.60	.010
	과잉기대	.275	.076	.012	.116	1.87	.062
	비일관성	.294	.086	.011	.115	1.75	.081
	과잉간섭	.299	.090	.003	.071	1.96	.339
	방치	.302	.091	.002	.053	.69	.487
	애정	.302	.091	.000	.004	.05	.956
	합리적 설명	.302	.092	.000	.004	.05	.955
지배	과잉기대	.193	.037	.037	.193	3.19	.002
	애정	.255	.065	.028	.168	2.81	.005
	방치	.281	.079	.014	.147	1.99	.047
	과잉간섭	.304	.092	.013	-.136	1.95	.051
	감독	.313	.098	.006	.082	1.26	.206
	합리적 설명	.318	.101	.003	.076	.98	.325
	학대	.324	.105	.003	-.071	.97	.333
	비일관성	.328	.108	.003	.070	.97	.331
양보	학대	.180	.033	.033	.180	2.99	.003
	과잉간섭	.201	.041	.008	.099	1.49	.137
	합리적 설명	.208	.043	.003	.055	.87	.381
	방치	.218	.047	.004	.080	1.05	.292
	애정	.224	.050	.003	.074	.88	.376
	과잉기대	.226	.051	.001	.035	.50	.613
	감독	.227	.052	.000	.025	.36	.716
	비일관성	.228	.052	.000	-.003	.04	.968
협력	감독	.174	.030	.030	.174	2.86	.004
	과잉간섭	.199	.039	.009	.096	1.58	.114
	애정	.215	.046	.007	.092	1.37	.171
	방치	.237	.056	.010	.128	1.66	.097
	학대	.248	.062	.005	-.091	1.22	.223
	비일관성	.249	.062	.000	-.027	.36	.712
	기대	.250	.062	.000	.016	.23	.817
	합리적 설명	.250	.063	.000	.015	.19	.846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전략유형과 부모 양육행동 간에는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전략 유형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은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이 교차하고 있다.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쌍은 지배전략과 과잉기대($r=.202$)이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쌍은 양보전략과 합리적 설명($r=.002$)이다.

<표 5>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 전략별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인 경향으로 8가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5.2%(양보전략) ~ 10.8%(지배전략)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략 유형에 따라 각기 1~3가지의 하위 양육행동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전략유형별로 살펴보면, 회피전략의 경우 부모의 감독(4.0%), 학대(2.4%) 행동이, 지배전략의 경우 과잉기대(3.7%), 애정(2.8%), 방치(1.4%) 행동이 각각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보전략과 협력전략의 경우 각각 학대(3.3%)와 감독(3.0%) 행동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나. 여학생

<표 6>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점수와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영역별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전략유

형과 부모 양육행동 간에는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쌍은 협력전략과 감독($r=.315$)이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쌍은 협력전략과 과잉간섭($r=.001$)이다.

<표 7>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 전략별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인 경향으로 8가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5.4%(양보전략) ~ 15.3%(협력전략)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하위 양육행동은 개별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1~3가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전략유형별로 살펴보면, 회피전략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5.8%), 비밀관성(1.6%) 행동이, 지배전략의 경우 과잉기대(3.8%) 행동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보전략은 방치(2.1%), 애정(1.5%)의 두 가지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의 감독 행동이 9.1%, 애정 행동이 3.4%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감독과 애정이라는 두 가지의 양육행동만으로 12.5%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이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이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들의 갈등해결전략 사

<표 6>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점수와 부모 양육행동 간의 적률상관(여학생)

전략유형	부모 양육행동							
	감독	합리적 설명	비 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회피	-.041	-.013	.199**	.174**	.221**	.119**	.162**	-.004
지배	.036	.077	.027	.204**	.093	.128*	.094	.077
양보	-.094	-.019	.050	-.015	.035	.061	.157**	.024
협력	.315**	.278**	-.048	.148*	.001	-.086	-.130*	.300**

* $p < .05$, ** $p < .01$

<표 7>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분석(여학생)

종속변인	투입변인	R	R ²	R ² 추가	β	t	p
회피	과잉간섭	.242	.058	.058	.242	4.00	.000
	비일관성	.273	.074	.016	.137	2.10	.036
	과잉기대	.283	.080	.006	.086	1.26	.206
	방치	.287	.082	.002	.050	.74	.455
	애정	.293	.086	.003	.074	.98	.328
	학대	.295	.087	.001	-.041	.57	.569
	합리적 설명	.296	.087	.001	.034	.43	.665
	감독	.296	.087	.000	-.010	.14	.888
지배	과잉기대	.195	.038	.038	.195	3.16	.002
	합리적 설명	.216	.047	.009	.094	1.52	.128
	방치	.237	.056	.10	.112	1.60	.109
	비일관성	.251	.063	.007	-.093	1.33	.182
	학대	.262	.069	.006	.090	1.25	.211
	애정	.268	.072	.003	.079	.89	.372
	과잉간섭	.271	.074	.002	.051	.68	.495
	감독	.273	.074	.001	.459	.45	.647
양보	방치	.146	.021	.021	.146	2.36	.019
	애정	.191	.037	.015	.148	2.00	.046
	감독	.212	.045	.008	-.104	1.48	.139
	과잉기대	.225	.050	.006	-.079	1.21	.227
	학대	.231	.054	.003	.064	.90	.368
	합리적 설명	.232	.054	.000	.017	.20	.841
	과잉간섭	.232	.054	.000	.010	.13	.897
	비일관성	.232	.054	.000	-.006	.08	.934
협력	감독	.301	.091	.091	.301	5.03	.000
	애정	.353	.125	.034	.204	3.13	.002
	과잉기대	.373	.139	.015	.121	2.06	.040
	합리적 설명	.381	.145	.006	.103	1.29	.196
	방치	.385	.148	.003	.071	.93	.349
	학대	.389	.151	.003	-.066	.97	.331
	과잉간섭	.390	.152	.001	.039	.55	.577
	비일관성	.391	.153	.000	-.018	.26	.788

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본 연구의 결과는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 지배 및 양보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협력전략은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게 몇몇 선행연구(이은혜 외, 2000; 정선영, 2000; Chung & Asher, 1996)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갈등상황에서 지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아에 비해 남아의 공격성을 묵인하는 사회 풍토와 이런 풍토를 반영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선영(2000)과 Chun과 Asher(199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은혜 등(2000)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연구 대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갈등 상황에서 지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협력 전략은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협력 전략 사용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회피 전략과 양보 전략 사용에 차이가 없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라 갈등상황에서 중학생이 사용하는 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협력 전략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피, 양보 및 지배 전략 사용 경향에는 변화가 없으나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력 전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생들은 이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이은혜 등(200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설명이 어렵다. 아마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갈등해결전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협력 전략을 사용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를 포함한 다양한 발달 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갈등해결 방식에서 왜 발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연구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양육 행동과 갈등해결전략 간에는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 행동은 청소년이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 전략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각 갈등해결전략과 관련되는 부모의 양육 행동 또한 양육 행동과 논리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

이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외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에 관계없이 감독이 협력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자녀가 양자의 관심사가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이들의 친구관계를 포함한 일상사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오늘날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 조사(김선애, 2003)에 의하면, 중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선진 외국에서는 다양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는 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갈등해결과 관련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은 성에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시 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성별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은 학년에 따라 대체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행동은 중학생의 갈등해결 전략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을 학교폭력 예

방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자녀의 지각에만 기초하여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둘째, 부모의 감독 행동이 중학생이 사용하는 협력 전략에 약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학생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참고 문헌

김선애,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pp.321~336, 2003.

김송이,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지현,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선영,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양문현,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이선영,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과 학교적응.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pp.105~121, 2000.

정미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선영,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1998.

정원식, 인간과 교육, 배영사, 1975.

정창영, 조망과 갈등대처양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한제인,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따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Asher, S. R., Parker, J. C., & Walker, D. L., Distinguishing friendship from accepta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assess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66~4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Chung, T., & Asher, S. R.,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2, pp.125~147, 1996.

Collins, W. A., & Laursen, B.,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pp.197~209, 1994.

Dunn, J., & Slomkowski, C.,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70~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Eisenberg, A. R., & Garvey, C.,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pp.149~170, 1981.
- Fonzi, A., Schneider, B. H., Tani, F., & Tomada, G.,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namic interaction in structured situation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3), pp.496~506, 1997.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Hightower, E., Adolescent interpersonal and familial precursors of positive mental health at midlif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pp.257~276, 1990.
- Rahim, M. A., A Mear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pp.368~376, 1983.
- Rahim, M. A., & Magner, N. 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facto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pp.122~132, 1995.
- Rose, A. J., & Asher, S. R.,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 with 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pp.69~79, 1999.
- Ryan, A. M., & patrick, H.,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Boston, 1996.
- Selman, R. L., Schultz, L. N., Nakkula, M., Bae, D., Watts, C., & Richmond, J., Friendship and figh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pp.529~558, 1992.
- Shaffer, D. 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3rd ed.). CA: Brooks/Cole, 1994.